

2025년 세계 경제 및 노동시장 전망

구자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전망(展望)’은 앞날을 헤아려 내다보거나 또는 내다보이는 장래의 상황을 의미한다.¹⁾ 미래가 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가능성, 그리고 새해가 주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불안감은 한 해의 시작과 함께 발표되는 경제 전망에 대한 사람들의 높은 관심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일기예보를 보며 그날의 날씨에 대비하고 준비하듯 사람들은 전문가들의 경제 전망을 통해 향후 경제의 흐름을 예측하고 대응하고자 한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말미암아 예기치 않게 2025년 경제 전망에는 ‘불확실성’이란 키워드가 빠질 수 없게 되었다. 탄핵 정국 이전에 작성된 연구기관의 2025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도 GDP 성장률 2%, 물가상승률 2%,²⁾ 취업자 수 12만 명 증가³⁾ 등 나쁘지 않은 경제 전망치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탄핵 정국 이후, 국내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전망인 1.8%보다 낮은 1.6%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며 좋지 않은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⁴⁾

1) 표준국어대사전.

2) 박춘성(2024), 「2025년 경제전망과 정책시사점」, 『금융브리프』 제33권 특별호(23호), 한국금융연구원, pp.3~7.

3) 한국노동연구원(2024), 「2024년 노동시장 평가와 2025년 노동시장 전망」, 『노동리뷰』 237, 한국노동연구원, pp.59~83.

4) 조선일보(2025), 「국내 경제학자들 “올해 성장률 1.6%… 상당 기간 정체”」,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5/02/03/VCYRWLG4PNB5BBK7L7QCO7HCNE/>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 여건 또한 만만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선거기간 동안 공표한 바와 같이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부과를 예고함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2.5% 이상 하락하였다.⁵⁾ 이러한 미국발 관세 압박 대상으로 현재는 우리나라가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트럼프 1기 당시 우리나라 세탁기에 20~50%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었던 만큼 언젠가 우리나라를 향한 통상 압박이 어떤 형태로 가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관세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까지도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 상대 중 하나인 중국의 상황 또한 밝지 않다. 중국은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강력하게 추진함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성장 둔화와 고용 위기를 동시에 맞닥뜨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대한국 수입 수요 감소로 이어져 무역 시장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번 호 국제노동브리프의 기획특집에서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갖춘 독일의 경제 전망을 함께 살펴보고, 향후 우리에게 미칠 영향과 더불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 Randall W. Eberts는 트럼프의 주요 선거 공약을 점검하며 올해 미국의 경제 전망을 살펴보았다. 철저한 국경 조치뿐만 아니라 미국에 거주 중인 이민자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및 추방을 공약한 트럼프 정부는 올해 2월 1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국경지대 마약 및 불법 이주민 단속 미이행 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공약을 현실화하였다. 선거기간 동안 바이든 정부의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비난한 트럼프이지만, 저자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자 추방 정책과 보호무역 정책이 오히려 미국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저자는 올해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실질 GDP 성장률 또한 지난해 2.7%와 유사하게 2.2%로 예측하여 경기침체보다는 연착륙을 예상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노동시장을 전망한 Wang Kan에 따르면, 저자는 미국과의 긴장 고조, 무역

5) 한경비즈니스(2025), 「트럼프發 관세 폭풍, 코스피·코스닥 휘청」,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2030144b>

분쟁,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중국의 노동시장이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유기업을 앞세운 정부의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규제 및 감독 강화로 민간 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진 만큼 올해 전체 노동시장 수요는 줄어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의 실업률 증가와 임금 수준 하락이 예상되는데 이와 더불어 중국 정부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정년 연장(60세 → 63세)이 노동시장에 과잉 공급을 초래해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시킬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이미 심각한 청년층과 농민공, 깃(Gig)노동자와 같은 비공식 노동자의 문제가 더욱 큰 사회적 과제가 될 것으로 저자는 예측한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경제 전망은 우리와 상황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특히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경우, 전기차 전환 및 글로벌 경쟁 심화로 인한 위기를 겪고 있고, 정치적 상황 또한 연립정부가 해체되어 조기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Matthias Knuth에 따르면, 연방헌법재판소의 ‘국가부채 제동장치’ 판결 이후, 전기자동차 보조금이 조기에 중단됨에 따라 자동차와 주요 제조업이 타격을 입어 이들 산업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및 감원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독일의 조기 총선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 증가는 낮은 GDP 성장률 전망 예측(1% 미만)으로 이어졌다. 무엇보다 저자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독일 경제 모델이 기존의 수출 중심 산업구조를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녹색 기술 전환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높은 정책적 불확실성과 세계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해 투자 및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경제 모델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이를 대체할 만한 전략이 부족한 현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 보인다.

미국, 중국, 독일의 이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2025년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흐름은 지난 3~4개월간 경제 전망의 변동성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11월 KDI는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토대로 2025년 예산안을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기조로 평가하였다.⁶⁾ 그러나 탄핵 정국 이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향후 15조 원에서 2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필요함을 이례적으로 언급하였다.⁷⁾ 이처럼 대내적 불확실성이 커지

6) 한국개발연구원(2024), 『KDI 경제전망』 2024 하반기.

7) 한국일보(2025), 「통화정책 수장 이창용 “15~20조 추경”... 규모까지 이례적 언급, 왜?」, <https://>

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번 호의 세계 경제 전망이 우리가 맞이한 ‘불확실성’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전환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 **KI**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1612410005961